

세상에서 얻은 것이 어떻게 자기 것인가?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어름 해는 길었다. 텅 빈 골목 한 칸에 쪼그리고 앉은 소년은 스쳐가듯 배운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가락에 맞추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읊조려 보았다. 서당에 간 친구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형편이 어려워 서당을 졸업 다닐 수 없었던 소년은 서당에 가는 날보다 쉬는 날이 훨씬 많았다.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소년은 친구들로부터 글 등냥을 하다가 피해서 <소화>부터 해서 <논어>, <맹자>를 익혀나갔다.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허기가 소년을 슬프게 했다.

어느 날 잿빛 승복을 입은 삼촌이 왔는데 참으로 멋져 보였다. 그리고 삼촌은 학식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승복을 입으면 삼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것만 같았다. 배움의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의 마음을 감지한 삼촌 김지견 박사는 소년을 탄허 스님에게 보냈다. 김지견 박사가 써준 추천장을 들고 속초 영은사로 찾아 간 열 다섯 살의 소년은 절에 발을 디딘 순간 환희심에 젖어 버렸다. 이 방 저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에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야' 하는 생각이 외락 들었던 것이다.

탄허 스님은 소년에게 점심공양하면서 천수경을 외라고 주었는데, 그날 저녁공양 전에 천수경을 다 외워 바쳤다. 소년의 뛰어난 한문 실력과 영특함을 한 눈에 알아 본 탄허 스님은 금강 온 신참을 '화엄경 3년 결사'에 동참할 것을 명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탄허 스님을 만난 소년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그 소년이 바로 지금의 혜거 스님이다. 3년 동안의 행자 시절에 탄허 스님을 모시고 사교와 사집을 다 배웠고, 출가자가 익혀야 할 공부의 반을 해마쳤다. 행자 때 나무하고 채미발 가꾸고 농사를 짓다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차분히 앉아 경전 외울 시간이 없었다. 돌아다니면서 경전을 외우다 보니 '수보리 행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혜거 스님은 "나는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스승과 제자의 연도 역급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 혜거 스님은 자신을 추켜세우는 것을 질색하지만 입 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강백으로 꼽고 있다.

혜거 스님의 처소에 들어서자 목향이 먼저 반긴다. 책상 위에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수행 삼아 금강경 열 쪽 병풍을 800벌이나 써보았지만, 당시의 글씨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아 지금도 계속 연습중이라 한다.

혜거 스님이 이곳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한지도 이십년이 넘었다. 매년 만오천명 정도가 수강하고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사람이 27만 명이 된다고 하니, 강남 일대에 불교와 공부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풍문이 괜한 소리가 아닐까 할 수 있다. 금강선원에서는 한문원전으로 경전을 공부하는데 보통 칠백 명에서 팔백 명은 족히 모인다. 금강선원



에는 한자능력시험 2-3급 합격자는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자 공부를 적극 장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부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사치성과 오락성에 그치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을 한 가지씩 가지라 했지. 가령 일본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발전시킬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나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식과 손자들이 존경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전을 원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을뿐더러 깊은 맛을 몰라요. 더구나 우리는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을 공부해 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한문 실력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 보면 이해의 폭이 넓고 좁은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납을 알 수가 있단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에 그러다 보면 불교의 핵심이 파묻힐 때도 왕왕 있기에 불교공부를 하려면 한문은 필수란다.

스님은 남에게만 배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또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역경을 하다보면 한자의 어조사 쓰임이 분명하지 않아 중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2004년에는 중국 하얼빈으로 반년동안 중국어학 연수를 다녀왔고, 지금도 매일 새벽 2시간씩 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 중국어를 읽고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른 억양과 발음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기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단다.

"저는 대중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금강선원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취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혜거 스님은 금강선원에서 매주 일, 월, 수, 금요일마다 경전강의와 참선지도도 하고 있으며, 불교TV와 서울불교전통문화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혜거 스님의 강의가 인기 있는 것은 경전을 일반인도 알기 쉬운 정도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혜거 스님은 교학을 공부하여 경전공부가 깊어진 후에 64년 김제 흥복사 선방에서 처음으로 결계를 했다. 화두를 들면 번뇌망상이 치성했지만 선공부 또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했다. 금강선원에서는 선과 교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다. 선을 하는 사람이 교를 배우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여쭙었다.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한 것을 버리

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방해가 되지만 배운 것을 버리면 버린 자체가 참선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공부한 개념, 관념, 지식 등을 진짜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부이지요. 공부와 틀고 앉아서 뭐 하려고... 사람들은 조사선을 중국선이라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다니면서 문답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선의 가풍입니다. 선재가 찾아가 묻고 답하는 것이 바로 선문답이며, <화엄경>의 입법계품 자체가 선의 진면목입니다."

머리에 각인된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했더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 가지만 하면 저절로 버려진다고 한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왕족 출신이었기에 참으로 오만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비관을 통하여 그 오만함을 버릴 수 있었다. 오만함을 버리고 탁발을 나갔더니 누구보다도 탁발이 쉬웠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내가 없으면 버릴 것조차도 없다고 한다.

"요즘을 지적소유권이라 해서 자신의 지식을 철저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지 자기 것이 아냐.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손해해. 그것을 빨리빨리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많이 자신에게 발전을 가져와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 내 것을 앞세워서 안되지."

혜거 스님은 운전은 한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스님이 남의 차를 들어받아 본 일은 없는데 다른 차가 와서 스님의 차를 들어받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혜거 스님은 '내 차가 당시 차 앞에 있어서 사고가 났으니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스님의 차를 들어받은 그 차의 수리비를 다 지불해주었다. 스님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무아를 실천하시는 것이다. 자비보살로 통하는 전철 같은 지혜 스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지혜 스님의 뺨을 때리자 그 사람의 손을 감싸면서 얼마나 아팠겠냐고 위로 했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참선은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도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풀어야 할 사무친 의문을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참선을 통해서 배우고 해결하려 하겠는가고 반문하신다. 참선은 실제로 부딪혔을 때 아상(我相) 없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다.

"원망심을 품은 사람이 아무리 원망을 하지 않으려 해도 원망은 자꾸 기지를 치고 끊임없이 나와요. 상대에 대한 원망심이 스스로 없어졌을 때 그 생각이 다시 안 일어나게 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상대에 의해 미움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참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솟구쳐야 해요. 간절함이 솟구쳤을 때는 참선 방법을 따로 누구에게 물을 것이 없고 스스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참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솔리피
• 가격: 6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지압·동갈창
• 가격: 20,000원
• 사이즈: 230-280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3-1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망사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합창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화재(陸海空)를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患)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厄運), 액살(穢殺), 잡귀(雜鬼) 등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事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 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鳥)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 지(地), 인(人)의 원력(原力)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刃)이 액운액살(厄運 穢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뺨뺨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99.9%)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당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엄홍수)